

제 110 회

한자실력급수 자격시험

(문제지)

※ 정답은 별도 배부한 OCR답안지에 작성함

급수	사범급	유형	A형	수험번호		-		-		-		
문항수	200	객	50	성명								
		주	150									
시험시간	120분											

수험생 유의 사항

- 수험표에 표기된 응시급수와 문제지의 급수가 같은지 확인하십시오.
- 답안지에 문제유형(A, B)를 <예시>와 같이 표기하십시오.
- 답안지에 성명, 수험번호, 생년월일을 정확하게 표기하십시오.
- 감독관의 설명을 들은 후 문제를 풀기 시작하십시오.
- 답안지의 주·객관식 답안란에는 검정색 펜을 사용하십시오.
- 답안지의 수정방법:
 - 객관식 답안의 수정은 수정테이프 만을 사용하십시오.
 - 주관식 답안의 수정은 수정테이프를 사용하거나, 두 줄을 긋고 다시 작성하십시오.
- 주관식은 임의로 간자나 약자를 기입할 경우 오답으로 처리되니 반드시 정자로 정서하여 기입하십시오.
- 주관식Ⅰ은 OCR답안지에, 주관식Ⅱ는 별도의 주관식Ⅱ답안지에 작성하십시오.
- 문항번호에 맞지 않게 기재한 답은 오답으로 처리되니 문항번호와 답안지의 번호(객관식과 주관식 구분)를 잘 확인하여 답안을 작성하십시오.
- 수험생의 잘못으로 인해 답안지에 이물질이 묻거나, 객관식 답안을 복수로 표기할 경우 오답으로 처리되니 답안지를 구기거나 낙서를 하는 등 훼손하지 마십시오.
- 시험 시간이 종료되면 필기를 멈추고 감독관의 안내에 따르십시오.
- 시험 시간 중에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를 조작하거나 사용하면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예시>

문제유형	
A형	●
B형	○

■ 이 문제지는 응시자가 가지고 가셔도 됩니다.

공인민간자격관리 · 운영기관


 社團 漢字教育振興會
 法人

韓國漢字實力評價院

제110회 한자실력급수 [사범급] 문제지

객관식 (1~50번)

※ [] 안의 한자와 음이 같은 한자는?

1. [蔦] ① 倪 ② 矮 ③ 娃 ④ 魏
2. [崑] ① 鯁 ② 苡 ③ 听 ④ 茵
3. [纏] ① 癩 ② 鑄 ③ 蹲 ④ 窩
4. [鋏] ① 插 ② 伋 ③ 簋 ④ 剋
5. [侃] ① 稈 ② 滢 ③ 薑 ④ 殼

※ [] 안의 한자와 음이 다른 한자는?

6. [楣] ① 薇 ② 徽 ③ 糜 ④ 徽
7. [頊] ① 昱 ② 栒 ③ 宥 ④ 勛
8. [酋] ① 雛 ② 鯁 ③ 瘳 ④ 揄
9. [瘞] ① 翳 ② 靄 ③ 咄 ④ 裔

※ [] 안의 한자와 뜻이 비슷하거나 같은 한자는?

10. [礪] ① 砥 ② 礁 ③ 礪 ④ 礪
11. [爬] ① 捍 ② 搨 ③ 搔 ④ 拯
12. [諂] ① 姐 ② 姘 ③ 娉 ④ 媚
13. [戾] ① 悖 ② 忤 ③ 怏 ④ 恚

※ 나머지 셋과 부수가 다른 한자는?

14. ① 漿 ② 漿 ③ 酒 ④ 求
15. ① 雁 ② 翟 ③ 雕 ④ 雍

※ 다음 중 한자어의 독음이 바르지 않은 것은?

16. ① 山砦 : 산채 ② 旗幡 : 기반
③ 質樸 : 질박 ④ 筍子 : 차자
17. ① 箝制 : 검제 ② 惆悵 : 추창
③ 梭田 : 준전 ④ 簪笏 : 잠홀
18. ① 耘鋤 : 운조 ② 躋攀 : 제반
③ 阻隘 : 조애 ④ 稗官 : 패관
19. ① 電纜 : 전람 ② 誄詞 : 뇌사
③ 甌餅 : 증병 ④ 金鏃 : 금족
20. ① 寰區 : 환구 ② 鑠金 : 낙금
③ 籌板 : 주판 ④ 司饗 : 사옹

※ [] 안의 한자어를 바르게 표기한 것은?

21. 경찰은 불법 유흥업소를 철저히 단속하겠다는 의지를 [천명] 하였다.
① 穿明 ② 喘明 ③ 闡明 ④ 遷明
22. 조선시대 관료의 평가는 [포핍] 제도였다.
① 佈貶 ② 褒貶 ③ 咆貶 ④ 炮貶
23. 음식물 쓰레기는 일단 [압착] 한 다음 버린다.
① 壓搾 ② 押窄 ③ 壓窄 ④ 押搾
24. ‘[계상] 재배’로 시작한 그의 편지를 읽기 시작했다.
① 屈觴 ② 稽觴 ③ 屈頹 ④ 稽頹
25. 우묵하게 패인 웅덩이 형태의 [와지] 에 빗물이 고였다.
① 窩地 ② 窪池 ③ 窪地 ④ 窩池
26. 동생은 내 질문에 대답도 않고 [영악] 스럽게 웃었다.
① 伶惡 ② 靈愕 ③ 伶愕 ④ 靈惡
27. 줄 끊긴 [방패연] 은 바람에 날려 사라졌다.
① 榜牌椽 ② 防牌椽 ③ 防牌鳶 ④ 榜牌鳶

※ [] 안에 들어갈 한자로 알맞은 것은?

28. 우리 팀은 준결승에서 강팀을 만나 [] 한 패배를 당했다.
① 深邃 ② 慘愴 ③ 澎湃 ④ 邁進
29. 부자가 천당에 들어가는 [] 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기보다 어렵다는 말이 있다.
① 粉黛 ② 蕨菜 ③ 駱駝 ④ 苧布
30. 달빛 아래 아득히 [] 이 들려온다.
① 砧聲 ② 贅言 ③ 湜漣 ④ 酣酪
31. 추운 겨울 날씨에 그는 [] 만 입고 벌벌 떨며 서 있었다.
① 治圃 ② 袂衣 ③ 阿諛 ④ 縵袍
32. 구제역으로 많은 가축들이 [] 되었다.
① 水疱 ② 棕櫚 ③ 斃死 ④ 淵藪
33. 그녀는 그런 거짓말을 하고도 티끌만 한 양심의 [] 도 느끼지 않는 듯하였다.
① 顧眄 ② 脈搏 ③ 刮目 ④ 呵責

34. 영결식장에는 []이/가 쓸쓸히 흘렀다.

- ① 輶軒 ② 輓歌 ③ 靱帶 ④ 猝地

※ 주어진 뜻에 알맞은 한자어는?

35. 은혜가 매우 넓고 두터움.

- ① 優渥 ② 鐵柵 ③ 拊踊 ④ 捌格

36. 재주가 둔하고 말이 어줍음.

- ① 班列 ② 拙訥 ③ 殫竭 ④ 瞬間

37. '마른기침'을 한방에서 이르는 말.

- ① 乾嗽 ② 筮竹 ③ 葶服 ④ 內帑

38. 비단으로 만든 일산.

- ① 傘箇 ② 繖概 ③ 繖蓋 ④ 珊瑚蓋

39. 자질구레하게 부스러짐. 또는 그 부스러기.

- ① 齷朴 ② 瑣屑 ③ 鉢盂 ④ 呶度

40. 머리털이 많이 빠져서 벗어진 머리.

- ① 櫛髮 ② 蠹髮 ③ 瀆髮 ④ 禿髮

41. 남을 속이어 재물이나 이익 따위를 빼앗음.

- ① 御廩 ② 尻驛 ③ 騙取 ④ 戒飭

※ []안의 한자성어의 속뜻으로 알맞은 것은?

42. [毋望之福]

- ① 보잘것없는 반찬을 즐기며 욕심 없이 검소하고 마음 편히 사는 복.
- ② 절대로 바라서는 안 되는 복.
- ③ 뜻하지 않게 얻는 복.
- ④ 바라기 어려운 허황한 복.

43. [十寒一曝]

- ① 일이 꾸준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중간에 자주 끊김을 이르는 말.
- ② 나날이 난폭하고 사나워짐.
- ③ 열흘 동안 얼리고 하루 녹여서 만든 음식.
- ④ 여러 사람이 등한시하는 것도 누구에게는 값진 물건이 될 수 있음.

44. [烹頭耳熟]

- ① 필요할 때는 쓰고 필요 없을 때는 야박하게 버리는 경우.
- ② 세력이 있을 때는 아첨하여 따르고 세력이 없어지면 푸대접하는 세상인심.
- ③ 한평생 살아 누린 나이.
- ④ 중요한 일이 잘되면 나머지 일도 따라서 저절로 이루어짐.

45. [暘谷]

- ① 해가 진다고 하는 곳.
- ② 해가 처음 뜨는 곳.
- ③ 물이 마른 골짜기.
- ④ 깊은 산속의 으스스한 골짜기.

※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昔에 有桓因庶子桓雄이 ㉠數意天下하여 貪求人世어늘 父知子意하고 下視三危太伯하니 可以(㉡)이라 乃授天符印三個하여 遣往理之하다 雄이 率徒三千하여 ㉢降於太伯山頂神檀樹下하니 謂之神市오 是謂桓雄天王也라 ㉣將風伯雨師雲師하여 而主穀主命主病主刑主善惡 凡主人間三百六十餘事하여 在世理化라 時有一熊一虎하여 同穴而居하니 常祈于神雄하여 願化爲人이라 時神遺靈艾一炷蒜二十枚曰 爾輩食之하고 不見日光百日하면 便得人形하리라하니 熊虎得而食之 忌三七日에 熊得女身이러니 虎不能忌하여 而不得人身이라 熊女者無與爲婚이라 故每於檀樹下하여 呪願有孕러니 (㉤)乃假化而婚之하여 孕生하니 號曰檀君王儉이라

《三國遺事》

46. 다음 밑줄 친 부분의 독음이 문맥상 ㉠의 독음과 다른 것은?

- ① 頻數 ② 數數往來
- ③ 數罟 ④ 數尿症

47. ㉡에 들어갈 것으로 알맞은 것은?

- ① 盡忠竭力 ② 寄與補裨
- ③ 奇貨可居 ④ 弘益人間

48. 문맥상 ㉠의 뜻과 상대되는 한자가 아닌 것은?

- ① 陟 ② 勝 ③ 昇 ④ 登

49. 문맥상 ㉢의 뜻으로 알맞은 것은?

- ① 나아가다 ② 장군
- ③ 장차 ④ 거느리다

50. ㉤에 들어갈 것으로 알맞은 것은?

- ① 雄 ② 熊 ③ 因 ④ 虎

주관식 I (주1~주100번)

■ [주관식 I]의 답은 [OCR답안지] 주관식 답안란에 검정색 펜으로 작성하시오.

※ 한자의 훈과 음을 쓰시오.

- 주1. 缺 ()
- 주2. 孱 ()
- 주3. 握 ()
- 주4. 膨 ()
- 주5. 嬖 ()
- 주6. 搆 ()
- 주7. 氮 ()
- 주8. 扎 ()
- 주9. 葡 ()
- 주10. 毓 ()
- 주11. 挺 ()
- 주12. 眸 ()
- 주13. 餠 ()
- 주14. 璿 ()
- 주15. 挫 ()
- 주16. 晷 ()
- 주17. 碌 ()
- 주18. 鞞 ()
- 주19. 兜 ()
- 주20. 王 ()
- 주21. 稜 ()
- 주22. 招 ()

※ 한자의 부수를 漢字(正字)로 쓰시오.

- 주23. 賡 ()
- 주24. 繭 ()
- 주25. 舊 ()
- 주26. 羸 ()

※ 훈과 음에 맞는 漢字(正字)를 쓰시오.

- 주27. 도리 형 ()
- 주28. 눈감을 명 ()
- 주29. 하소연할 참 ()
- 주30. 꺾을 최 ()
- 주31. 깨물 간 ()

- 주32. 부리 휘 ()
- 주33. 가져올 재 ()
- 주34. 쇠망치 추 ()
- 주35. 연기자욱할 봉 ()
- 주36. 양금 전 ()

※ ○에 공통으로 들어갈 漢字를 <보기>에서 찾아 쓰시오.

<보기>	歉 煊 肴 詡 朽 龔 畦 褐
------	-----------------

- 주37. ○畔 丘○ ○斷 ()
- 주38. 凶○ ○年 災○ ()
- 주39. 不○ ○滅 老○ ()
- 주40. 裘○ ○變 茶○色 ()

※ 다음 한자어의 독음을 쓰시오.

- 주41. 蝦醢 ()
- 주42. 衲僧 ()
- 주43. 肄儀 ()
- 주44. 覈得 ()
- 주45. 鰓骨 ()
- 주46. 分蘖 ()
- 주47. 匙楫 ()
- 주48. 麤鹵 ()
- 주49. 鐫銜 ()
- 주50. 羈絆 ()
- 주51. 摺扇 ()
- 주52. 黻冕 ()
- 주53. 韭菹 ()
- 주54. 嵇康 ()
- 주55. 耨耕 ()
- 주56. 嫩晴 ()

※ []안 단어를 문맥에 맞게 漢字로 쓰시오.

- 주57. 고주파 전류에 실어 변조된 방송파는 송신 안테나에 의해 모든 방향으로 [복사]한다. ()
- 주58. 저작자의 허가가 없이 이 책을 재분하거나 [복사]할 수 없습니다. ()
- 주59. 잎이 [조락]해 버린 나무를 보고 있으니 마음이 더욱 쓸쓸하구나. ()
- 주60. 제왕의 죽음을 [조락]이라고도 한다. ()

※ 문장에서 잘못 쓴 漢字를 바르게 고쳐 쓰시오. (단, 음이 같은 한자로 고칠 것)

주61. 최 兵長의 轉逆으로 우리 小隊에서는 내가 最古參이 되었다.

(→)

주62. 同生은 螺顛 漆器 工藝 技術을 研磨하고 있다.

(→)

주63. 形便이 如意치 않아 棗穗만 準備하여 어른을 뵈러 나섰다.

(→)

주64. 그 演劇은 內容뿐 아니라 대사까지 猥濞스럽다.

(→)

주65. 船暢에는 貨物船이 막 到着해 인부들이 부산하게 貨物을 荷役하고 있었다.

(→)

※ 풀이에 맞게 []안의 단어를 漢字(正字)로 쓰시오.

주66. [구나]: 고려·조선 시대에, 세밀에 궁중에서 역귀를 쫓던 일. 또는 그런 의식.

()

주67. [훈륜]: 달무리, 햇무리 따위의 둥근 테두리.

()

주68. [경제 공황]: 경제 순환 과정에서 나타나는 경제 혼란의 현상.

()

주69. [두서]: 줌이 쓴 책. 책을 별에 짬.

()

주70. [증류]: 액체를 가열하여 생긴 기체를 냉각하여 다시 액체로 만드는 일.

()

주71. [예궐]: 대궐 안으로 들어감.

()

주72. [관수]: 세수와 양치질을 함.

()

주73. [대척]: 어떤 사물이나 현상을 비교해 볼 때, 서로 정반대가 됨.

()

주74. [삼투]: 농도가 다른 두 액체를 반투막으로 막아 놓았을 때에,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농도가 높은 쪽으로 용매가 옮겨 가는 현상.

()

주75. [벽감]: 장식을 위하여 벽면을 오목하게 파서 만든 공간.

()

※ 문장 속 []안의 단어를 漢字(正字)로 쓰시오.

주76. 그 사건에 대한 터무니없는 [역측]이 파다하게 퍼졌다.

()

주77. 녹음으로 채록된 민요, [범패], 무가 따위를 음반으로 만들었다.

()

주78. 한반도의 중부나 남부지역에서는 [습곡]으로 형성된 산을 많이 볼 수 있다.

()

주79. 이번 대회에서 대상을 받은 작품에 대해 [표절] 시비가 일고 있다.

()

주80. 이곳은 가뭄이 들 때 [무우제]를 지내던 고개다.

()

주81. 그는 성품이 온화해서 마치 [미륵]같다.

()

주82. 그가 갑자기 지조를 꺾고 [궤변]을 늘어놓는 이유를 모르겠다.

()

주83. 땅 구멍 속에 사는 [설치류]는 눈의 발육이 불완전하고 눈이 거의 털로 덮인 경우도 있다.

()

주84. [사특]한 무리를 멀리해야 한다.

()

주85. 전투가 끝난 벌판에서는 [초연]이 자욱하였다.

()

주86. 그는 그곳에서 [억울]하게 죽은 혼백을 달래기 위해 향을 피웠다.

()

주87. 진시황의 무덤에서 엄청난 양의 [도용]이 발굴되었다.

()

주88. 그에 대한 [홍홍]한 소문이 널리 퍼지고 있다.

()

주89. 우리 고향에서는 봄이면 [두견화전]을 만들어 먹었다.

()

주90. 그들은 소극적이고 [퇴영적]인 성격의 사람들이다.

()

※ [] 안의 한자성어의 뜻을 읽고 ○ 안에 들어갈 알맞은 漢字(正字)를 쓰시오.

- 주91. [○網俱失] 이익을 보려다가 도리어 밑천까지 잃음을 이르는 말. ()
- 주92. [稍○食之] 점차 조금씩 침략하여 먹어 들어감. ()
- 주93. [怒○拔劍] 사소한 일에 화를 내거나 또는 작은 일에 어울리지 않게 커다란 대책을 세움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 주94. [汗出○背] 몹시 부끄럽거나 무서워서 흐르는 땀이 등을 적심. ()
- 주95. [自然○汰] 자연계에서 그 생활 조건에 적응하는 생물은 생존하고, 그러지 못한 생물은 저절로 사라지는 일. ()
- 주96. [○人廣座] 여러 사람이 뻐뻐하게 많이 모인 자리. ()
- 주97. [席○待罪] 거적을 깔고 엎드려서 임금의 처분이나 명령을 기다리던 일. ()
- 주98. [○角之爭] 하찮은 일로 벌이는 싸움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 주99. [簷牙高○] 지붕의 네 모서리의 처마가 어금니처럼 불쑥 나옴. ()
- 주100. [毫○之差] 아주 근소한 차이. ()

주관식 II (주101~주150번)

■ [주관식III]의 답은 별도의 [주관식 II 답안지]에 검정색 펜으로 작성하시오.

※ [] 안의 한자성어 활용이 적절하면 ‘O’, 적절하지 않으면 ‘X’로 표기하시오.

- 주101. 임금은 간신들의 참소에 근거하여 끝내 그 충신을 [極邊遠竄]하였다. ()
- 주102. 지난주 금요일에 새로 산 선풍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靑氈舊物]이 되어 버렸다. ()
- 주103. 우리는 바쁜 일정 중에도 잠시 시간을 내어 모처럼 [忙中偷閑]을 즐겼다. ()
- 주104. 잘 사는 사람만 골라서 사귀는 그의 간사한 모습은 [杵臼之交]라는 말이 딱 적합하다. ()

※ [] 안의 문장의 뜻에 부합하는 사자성어를 漢字(正字)로 쓰시오.

- 주105. 공자의 제자 안연은 [한 그릇의 밥과 한 바가지의 물을 먹으며 좁고 좁은 골목에서] 빈곤한 생활을 하면서도 道를 즐겼다. ()
- 주106. [물건을 아까운 줄 모르고 마구 써 버리거나 아껴 쓰지 아니하고 함부로 버리면] 가난해진다. ()
- 주107. [전혀 쓸모없는 소의 오줌이나 말똥] 같은 글은 쓰지 않는 것만 못하다. ()
- 주108. 임금이 [날이 채 밝기 전에 옷을 입고 해가 진 후에 저녁밥을 먹으며] 정사에 전념하니 나라가 크게 융성해졌다. ()

※ 성어의 속뜻을 쓰시오.

- 주109. 龍蟠虎踞 ()
- 주110. 春雉自鳴 ()
- 주111. 走獐落兔 ()
- 주112. 多岐亡羊 ()

※ 다음 문장에 해당하는 우리말 속담을 쓰시오.

- 주113. 昔以甘茹 今乃苦吐 ()
- 주114. 十斫木 無不斫 ()
- 주115. 量吾被 置吾足 ()
- 주116. 予所憎兒 先抱之懷 ()

※ 문장의 ○안에 들어갈 漢字를 <보기>에서 찾아 차례대로 쓰시오.

<보기> 安須於而焉亦若與必以哉但寧

주117. 立身行道 揚名○後世 ○顯父母 孝之終也 《孝經》

(,) 주118. 禮○其奢也 ○儉 《論語》

(,) 주119. 燕雀○知鴻鵠之志○ 《十八史略》

(,) 주120. 飯疏食飲水 曲肱而枕之 樂○在其中矣 不義○富且貴 於我 如浮雲 《論語》

(,)

※ 문장의 ○안에 들어갈 漢字를 <보기>에서 찾아 차례대로 쓰시오.

<보기> 裁偽種鄙史誠信利篤違野養時

주121. 質勝文則○ 文勝質則○ 文質 彬彬然後 君子 《論語》

(,) 주122. 人之性 惡 其善者 ○也 今人之性生而有好○焉 順是故 爭奪生 而辭讓亡焉 《荀子》

(,) 주123. 道千乘之國 敬事而○ 節用而愛人 使民以○ 《論語》

(,) 주124. 天之生物 必因其材而○焉 故○者 培之 傾者覆之 《中庸》

(,)

※ 주어진 국역을 참고하여 []안의 漢字들을 알맞게 배열하여 문장을 완성하시오.

주125. [厚地載子以勢物德君坤]

《周易》

국역: 땅의 성향은 유순 포용하는 것이니, 군자는 이를 본받아 두터운 덕으로 만물을 길러낸다.

()

주126. [窓之以倚容傲易安審膝南寄]

《古文眞寶》

국역: 남쪽 창가에 기대어 자유스러움을 부치니 무릎을 용납할 만한 곳이 편안하기 쉬움을 알았노라.

()

주127. 以道佐人主者 [還下好天以事不兵其強]

《老子》

국역: 도로써 인주를 돕는 자는 병력으로 천하를 강제하지 않으니 그 일이 잘 돌아오기 때문이다.

()

주128. [護之之爲是身慎符寶無勤價]

《明心寶鑑》

국역: 근면함은 값으로 따질 수 없는 보배이고 신중함은 몸을 보호하는 부적이다.

()

※ [] 부분을 국역하시오.

주129. 上善若水 [水善利萬物而不爭] 處衆人之所惡 故幾於道 《老子》

()

주130. [責難於君 謂之恭] 陳善閉邪 謂之敬 吾君不能 謂之賊 《孟子》

()

주131. 利人之言 暖如綿絮 [傷人之言 利如荊棘]

《明心寶鑑》

()

※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久雨 - 丁若鏞

窮居罕人事 恒日廢衣冠
敗屋香娘墜 荒畦[㉠]腐婢殘
睡因多病減 愁賴著書寬
久雨何須苦 [㉡]晴時也自歎

(나) [㉢]訪金居士野居 - 鄭道傳

秋陰漠漠四山空 落葉無聲滿地紅
立馬溪橋問歸路 不知身在畫圖中

(다) 詠井中月 - 李奎報

山僧貪月色 并汲一瓶中
[㉣]到寺方應覺 瓶傾月亦[㉤]

주132. ㉠의 뜻을 쓰시오. ()

주133. ㉡을 국역하시오. ()

주134. (가)에서 韻字를 모두 찾아 漢字(正字)로 쓰시오. ()

주135. ㉢을 국역하시오. ()

주136. (나)에서 物我一體의 경지를 나타낸 詩句를 찾아 국역하시오. ()

주137. ㉣을 국역하시오. ()

주138. ㉤에 들어갈 漢字를 (나)에서 찾아 漢字(正字)로 쓰시오. ()

※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古之學者는 必有師니 師者는 所以傳道授業解惑也라 人非生而知之者니 孰能無惑이리오 惑而不從師면 其爲惑也는 終不解矣라 生乎吾前하여 其聞道也가 固先乎吾면 吾從而師之요 生乎吾後라도 其聞道也가 亦先乎吾면 吾從而師之라 吾師道也니 夫庸知其年之先後生於吾乎리오 是故로 無貴無賤하고 無長無少요 道之所存이 ㉔師之所存也라 嗟呼라 師道之不傳也가 久矣니 ㉑欲人之無惑也나 難矣라 古之聖人은 其出人也 遠矣로대 ㉒猶且從師而問焉이어늘 今之衆人은 其下聖人也亦遠矣로대 而恥學於師하니 是故로 聖益聖하고 愚益愚라 聖人之所以爲聖과 愚人之所以爲愚는 皆出於此乎인지 愛其子하여 擇師而教之로되 ㉓於其身也엔 則恥師焉하니 惑矣로다 彼童子之師는 授之書而習其句讀者也니 非吾所謂傳其道解其惑者也라 ㉔句讀之不知와 惑之不解에 或㉕師焉하고 或不焉하여 ㉖小學而大遺하니 吾未見其明也로라

《古文眞寶》

주139. 문맥상 ㉔와 ㉕의 품사를 쓰시오.

(㉔: _____, ㉕: _____)

주140. ㉑을 국역하시오.

(_____)

주141. 문맥상 ㉒의 ‘훈과 음’을 쓰시오.

(_____)

주142. ㉓을 국역하시오.

(_____)

주143. 문맥상 ㉔의 ‘독음’을 쓰시오.

(_____)

주144. ㉖을 국역하시오.

(_____)

※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臣本布衣로 躬耕南陽하여 苟全性命於亂世하고 不求㉑문달於諸侯러니 先帝不以臣卑鄙하시고 猥自枉屈하사 三顧臣於草廬之中하시고 咨臣以當世之事하시니 由是感激하여 遂許先帝以㉒驅馳러니 後值傾覆하여 受任於敗軍之際하고 ㉓奉命於危難之間이 爾來二十有一年矣니이다 先帝知臣謹慎이라 故로 臨崩에 寄臣以大事也하시니 受命以來로 夙夜憂嘆하여 ㉔恐託付不効하여 以傷先帝之明이라 故로 五月渡瀘하여 深入不毛러니 今南方已定하고 兵甲已足하니 當獎率三軍하고 北定中原하여 庶竭駑鈍하여 攘除姦兇하고 興復(㉕)하여 還于舊都가 此臣所以報先帝而忠陛下之職分也니이다

《古文眞寶》

주145. ㉑을 漢字(正字)로 쓰시오.

(_____)

주146. 문맥상 ㉒의 뜻을 쓰시오.

(_____)

주147. ㉓을 국역하시오.

(_____)

주148. ㉔을 국역하시오.

(_____)

주149. 문맥상 ㉕에 들어갈 2음절 단어를 漢字(正字)로 쓰시오. (_____)

주150. 윗글을 쓴 이의 字는 ‘孔明’이다. 이 저자의 姓名을 漢字(正字)로 쓰시오. (_____)

- 수고하셨습니다 -

합격자 발표: 2022. 12. 15. (목)

결 과 조 회: 홈페이지 (www.hanja114.org) 접속
(성명, 생년월일, 수험번호 필수 기재)

제110회 한자자격시험 사범급 모범답안 (1)

■ 객관식 ■

1	④	6	④	11	③	16	②	21	③	26	④	31	②	36	②	41	③	46	③
2	③	7	③	12	④	17	③	22	②	27	③	32	③	37	①	42	③	47	④
3	②	8	④	13	①	18	①	23	①	28	②	33	④	38	③	43	①	48	②
4	①	9	②	14	③	19	④	24	④	29	③	34	②	39	②	44	④	49	④
5	①	10	①	15	②	20	②	25	③	30	①	35	①	40	④	45	②	50	①

■ 주관식 I ■

주1	집게 험	주21	밭두둑/모 릉	주41	하해	주61	逆→役	주81	彌勒
주2	잔약할 잔	주22	나무흔들릴 소	주42	납승	주62	顛→鈿	주82	詭辯
주3	뽑을 알	주23	貝	주43	이의	주63	穗→脩	주83	齧齒類
주4	부풀 팽	주24	糸	주44	핵득	주64	漑→褻	주84	邪慝
주5	사랑할 폐	주25	臼	주45	새골	주65	暢→艫	주85	硝煙
주6	이해못함어끝 구	주26	羊	주46	분얼	주66	驅儼	주86	抑鬱
주7	질소 담	주27	桁	주47	시접	주67	暈輪	주87	陶俑
주8	빨 찰	주28	暝	주48	추로	주68	經濟恐慌	주88	洶洶
주9	무 복	주29	譖	주49	적함	주69	蠹書	주89	杜鵑花煎
주10	기를 육	주30	摧	주50	기반	주70	蒸/蒸溜	주90	退嬰的
주11	늘일 연	주31	齷	주51	접선	주71	詣闕	주91	蟹
주12	눈동자 모	주32	喙	주52	불면	주72	盥漱	주92	蠶
주13	떡 고	주33	齋	주53	구저	주73	對蹠	주93	蠅
주14	구슬 선	주34	鎚	주54	혜강	주74	滲透	주94	沾
주15	겪을 좌	주35	燧	주55	누경	주75	壁龕	주95	淘
주16	그림자 귀/구	주36	澱	주56	눈칭	주76	臆測	주96	稠
주17	돌모양 록	주37	壟	주57	輻射	주77	梵唄	주97	藁
주18	칼집 초	주38	歉	주58	複寫	주78	褶曲	주98	蝸
주19	투구 두	주39	朽	주59	凋落	주79	剽竊	주99	啄
주20	옥다듬는장인 숙	주40	褐	주60	殂落	주80	舞雩祭	주100	釐

제110회 한자자격시험 사범급 모범답안 (2)

▣ 주관식 II ▣

주101	○	주118	與 , 寧	주135	김 거사의 시골집을 방문하며
주102	X	주119	安 , 哉	주136	모르겠구나, 이 몸이 한 폭의 그림 속에 있는지를.
주103	○	주120	亦 , 而	주137	절에 돌아와/이르러 비로소 깨달았으리.
주104	X	주121	野 , 史	주138	空
주105	箠瓢陋巷	주122	僞 , 利	주139	㉠: 명사, ㉡: 동사
주106	暴殄天物	주123	信 , 時	주140	사람들이 의혹함이 없게 하고자 하나 어려운 것이다.
주107	牛溲馬勃	주124	篤 , 栽	주141	오히려 유
주108	宵衣旰食	주125	地勢坤 君子以厚德載物	주142	자기 자신에 있어서는 스승 삼기를 부끄러워하니 이는 미혹된 것이다.
주109	웅장한 산세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주126	倚南窓以寄傲 審容膝之易安	주143	구두
주110	제 허물을 제 스스로 드러냄으로써 남이 알게 된다는 말.	주127	不以兵強天下 其事好還	주144	작은 것은 배우고 큰 것은 버리니/ 잃으니
주111	뜻밖의 이익이 생김을 이르는 말.	주128	勤爲無價之寶 慎是護身之符	주145	聞達
주112	두루 섭렵하기만 하고 전공하는 바가 없어 끝내 성취하지 못함을 이르는 말.	주129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나 다투지 않으며	주146	국사에 분주함
주113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주130	임금에게 하기 어려운 일을 권면하고 책하는 것을 일러 공손하다고 하고	주147	위난한 때에 명령을 받든지가 21년이 되었다.
주114	열 번 짚어 아니 넘어가는 나무 없다.	주131	남에게 상처를 주는 말은 날카롭기가 가시 같다.	주148	부탁하신 것을 이루지 못해서 선제의 밝음을 손상시킬까 두려워하다.
주115	누울 자리 봐 가며 밭을 뺏어라.	주132	팔꽃	주149	漢室
주116	미운 아이 먼저 품어라.	주133	날 맑아도 또 혼자서 탄식할 것을	주150	諸葛亮
주117	於 , 以	주134	冠 殘 寬 歎		